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

예전, 젊어서 고향에 살 때의 기억이다. 금강 하구 철새 도래지로 가끔 청둥오리 사냥을 가는 젊은 축들이 있었다. 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백조에 대한 것이다. 백조는 우리말로로는 고니라고 불리는 몸집이 크고 털빛깔이 새하얀 새이다. 녀석들은 갈대숲이나 습지에 무리 지어 앉아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어김없이 사 랩이 다가간 거리만큼 뒤로 물러난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다. 말하자면 생명의 거린인 셈이다. 동물치고는 참 영 리하고 똑똑한 녀석들이라 하겠다.

인간 세상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해도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진력이 나고 싫증이 나게 되어 있다. 좋은 사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사

사랑의 거리

이도 그렇고 심지어 애인 사이도 그렇다. 가까운 사이, 좋은 사이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집에 사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상호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삼갈 것은 삼가고 눈감거나 비켜 갈 것은 또 그래야 한다. 그러기에 옛날 어른들도 부부윤비이라 했다. 부부 사이는 구별이안 되는 밀접한 인간관계다. 그래도 그래서 는 안 단다는 얘기가. 이것은 매우 평범 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기에 더욱 귀 중한 교훈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사귀면서 내가 지 키고 있는 원칙 같은 것이 있다. 누구하 고든 거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다는 것이다. 아무 리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는 가까이 가지 는 않는다. 하고 싶은 말도 모조리 하지 는 않고 조금은 아껴 둔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미온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빠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오 래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그동안에 좋은 느낌으로 그 거리에 그냥 멈추어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좋은 관계로

의 새로운 복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나는 사랑의 거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 대목에 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말은 섹터퀴페 리의 말이다. “사랑은 돌이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관계로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를 말해 주는 것도 같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 관 계가 많이 소원해진 경향이다. 언어폭력 이든지 성추행이란 말까지 나와 물리 님네 사자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사랑한 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은 얼마나 파스한 말이고 좋은 말인가. 그러나 그런 말조차 마음의 거리다. 왜 우리가 이 좋은 세 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 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살게 되었는가. 많이 서글픈 마음이다.

최근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사회 적 거리란 것이 다시 생겨났다. 일상의 평범한 삶은 멈추고 갑자기 이상한 세상 이 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 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삶과 살아

보지 않은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 신종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 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체적 접촉을 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방책이다. 우리 풀꽃문학관만 해도 계속 휴관 중이다. 프 몬드론 관광객들이 오고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갑지가 않다.

멀리서 바라보며 인사하고 좋은 시절 이 오면 다시 오시라 인사를 보낸다. 물 론 약속도 하지 않고, 사진도 같이 찍지 않고, 책을 들고 와 사인을 해달라고 해 도 다음에 하자고 미룬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많이 소원해진 느낌이다. 어쨌 도 조심스러운 세상이다. 그야말로 이것 은 마음의 거리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랑의 거리가 아니고 강제로 만들어진 마음의 거리다. 왜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지 는가. 마음의 단절이 있을 수 있고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그 모든 '거 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씩 섭섭함과 공허함과 불편 함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생명의 거리, 소생의 거리, 끝내는 사랑의 거리 가 되기를 소망한다.

종교칼럼

목련꽃 아래 노천카페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어제 적목당 노천카페가 오픈했습니 다. 카페라고 하지만 목련꽃 아래 작은 테이블 하나 놓아 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햇살 따사로운 날이면 여느 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살짝 덥다 싶을 정도로 포근한 봄날이 였습니다. 이 정도면 티끌만큼의 찬 기운 도 용납하지 않는 D스님도 괜찮겠다 싶 어 목련꽃 아래에서 차담을 가졌습니 다. 그래도 햇살 따사로운 날이면 여느 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살짝 덥다 싶을 정도로 포근한 봄날이 였습니다. 이 정도면 티끌만큼의 찬 기운 도 용납하지 않는 D스님도 괜찮겠다 싶 어 목련꽃 아래에서 차담을 가졌습니 다. 그래도 햇살 따사로운 날이면 여느 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봉암사 살았어?”, 나는 “아~ 그 스님! 우리 때는 입승 뵈지. 그때 말이야...”

예전 선방 시절 이야기로 한창 분위 기가 고조되어 갈 때였습니다. 숨이 차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현실

을 잊게 해주었던 과거로의 추억 여행 은 거짓말처럼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 쨌 수 없이 잠시 봄날처럼 들떠 울랐던 감정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말을 하면 숨이 찹니다. “예” “아니요” 이런 말 말고, 조용하게 혹은 차 분하게 하는 말 말고, 신이 나서 아니면 화가 나서, 큰 목소리로 아니면 빠르게, 구구절절 아니면 장황하게, 말을 하면 한 참 동안 숨쉬기가 힘들다. 마음이 잠시 라도 있고 있으면, 몸이 말합니다. “이 봐!, 나 말아야. 아직은 환자야”라고 말 입니다. 한 푼의 에누리도 없이 현실을 다시 상기하게 합니다.

“허는 나를 죽이는 도끼”라고 한 말이 지금 내게는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꼭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같은 말 한마디가 내 심장 세포 하나를 내리찍어 죽이는 셈입니다. 날뛰는 이마음을 다스 리지 않으면 내 심장이 먼저 죽습니다. 그동안 남의 말 듣지않고, 온갖 험한 말 쏟아낸 짓값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봄날에 취해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났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뼈에 사무 치는 후회란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어리석음의 소지입니다. 추억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

니다. 추억 속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꿈 속 을 해매느라 지금 그리고 여기를 잊어버 리는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나의 후회 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숙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모든 단 지 지금 그리고 여기를 망각하는 마음에 게 친절한 경고를 보냈을 뿐입니다.

해가지기 전, 목련꽃아래 노천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공기가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한낮의 즐거웠던 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노천카페엔 후 회만 가득합니다.

며칠 전부터 핸드폰을 바꿀까 말까 망 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폰이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 좋은 폰이 꼭 필 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 니다. 필요하면 사면 그만이지 그걸 살까 말까 망설이는 건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 른 모습이라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런데 목련꽃 아래 텃밭 테이블을 보고서 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 텃밭 테 이블처럼 내 안 어딘가도 텅 비어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마도 내 삶의 평범했던 시간들이 휴양지에서의 곁 같은 나날처 럼 아스라이 멀게 느껴져서 그랬나 봅니 다. 다만 마음이 허전했을 따름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허전함을 어떻게든 무엇

으로든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신상 핸드폰을 검색하고 장바구 니에 담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봄날의 햇 살이 아름다울수록, 추억의 순간이 소중 할수록,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는 법. 무엇이 있던 자리였을까요? 건강, 젊 음, 청춘, 열정, 사랑...아마도 이런 것들 이었겠지요.

뜻하지 않게 조금 일찍 늙어감을 경험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늙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 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늙는다는 것.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늙는다’는 단 어를 써야만 하는 현실이 내게도 찾아왔 다는 것. 이제는 인정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상실이며, 상 실 뒤에 찾아오는 무저갱 같은 허전함이 며, 허전함을 굳이 지우려 애쓰는 이로 움이며, 외로움조차 친구 삼는 여유와 평정심입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대중 소리가 도랑 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10년 전, 20년 전의 나 같은 사람들이 도끼 같 은 말들을 쏟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신의 축복이 있기를 간 절하게 기원합니다.

기고

전관 특혜부터 근절해야 한다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이 있는 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뜨거 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검경의 사건 개시부터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준 사법기관 및 법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행태가 문 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검찰의 자의적인 사 건 배당을 견제하는 방안’은 제외했고, 수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3년으로 확 대한다고 한들 전관예우 행태를 근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인 경우 수임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로펌이 수임한 사건인 경우 전관이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지정, 변론한다면 형식으로 는 전관예우를 피한다고 하지만 인과 관 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금지 기간 이후 영향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부장 검사, 부장판사 이상 직위에 있는 경우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를 제안한다.

검찰과 법원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최 후의 보루이며, 검사, 판사 대부분은 선량 하고 변호사는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극히 일부인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사회와의 근원이라면 그 근원을 뿌리 뽑아

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가 제시한 ‘법조 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검찰의 자의적 인 사건 배당을 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 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 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마뜩치 않게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실상 ‘직 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좋은 취 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토록 집 요하게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시키려고 하 는 이유는 이 문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좌시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오래 전, L씨는 법조계 요직에 지명돼 청문회를 실시할 당시 어느 국회의원이 “법관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수임료로 60억 원이면 아주 많은 것 아닙니까?”라 고 묻자 “그것은 아주 약한 겁니다. 저는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라고 하여 청문회장을 웃음바다로 만 든 적이 있었다.

요새는 재야 법조인이 정부 및 각급 법 원에서 일하는 기회가 열려 있고, 실제로 법조인의 교류는 앞으로도 확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재조 법조인의 전문 지식과 소송 기술 고

류는 바람직하고, 열린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 하며, 자본주의 사회로 치달을수록 개인 과 개인 간, 소비자 생산자를 대상으 로, 피해자가 허가 행정청을 대상으 로,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 는 특허 분쟁 등 크고 작은 소송도 늘어 날 것이다. 옛말에 ‘송사 3년에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소송의 증가는 우려한 만한 일이다.

더구나 전관예우 시장이 형성돼 있고, 소비자로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법률 소비자로서도 법률 전 문가를 막대한 비용 때문에 소송 대리인 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 하기에 합리적인 소송 제도가 무슨 소용 이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보 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 의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춘 조 직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반드시 ‘검찰의 자의적인 사건 배당을 견 제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여러 수단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구·아구·골프 등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자 텍사스의 한 지역 일간지가 지난달 16일 스포츠 섹션의 1면을 백지로 편집했다. 편집장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게임 도 열리지 않았다. 백지 편집은 코로나 확 산을 한눈에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로 다르지 않다. 프로야구 개막은 기약이 없고 프로축구는 시작도 하기 전 에 시즌 축소 운영을 논의하고 있다. 인 적도 합성도 사라진 그라운드는 팬들을 슬프게 한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려 퍼질 때의 긴장감,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 로 몰아넣는 홈런이나 골 세리머니, 라이벌 팀 을 무너뜨렸을 때의 짜릿함, 판정에 대한 불만과 패배에 대한 탄식까지...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기장에 불이 꺼지고 승부의 시계가 멈추자 신문 스포츠면에 활력이 사라졌 다. 공연과 전시가 멈춘 문화면도,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경제면도 마찬가지 다. 지금 편집기자들의 머릿속은 하얗 다. 차리리 ‘백지 편집’을 해 볼까?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社說

파국 위기 광주형 일자리 한 발짝씩 양보를

한국노총이 끝내 노사 상생형 지역 일 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지놓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 다. 한국노총은 협약 파기 배경으로 민선 7기 들어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해체 되는 등 노동 정책이 후퇴했고 광주형 일 자리 추진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동원 대 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광태 전 광주시 장을 합작법인 대표로 선임한 부적절한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협약 파기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합 작법인의 1,2대 주주로 광주형 일자리의 파트너인 광주시와 현대차 측에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 원칙인 노사 책임경영과 적정 임금 및 근로시간, 원하청 상생 방 안 등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광주형 일

자리는 일단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광주시가 한국 노총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 직전에 파국 만은 막자고 호소했지만 노동계의 마음 을 돌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날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협상의 여지가 아 주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상생 방안과 투자협약서 공개 등 6개 항의 요구사항 가운데 노동 이에게 도입한 제외하고 모두 수용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 책임경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은 현대차가 강하 게 반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파국 위기 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서는 이제부터 현대차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계와 광주시 의 2차 협상 형국을 이제는 현대차가 참 여하는 3차 협상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협상이란 한쪽이 모든 것을 얻겠다는 자 세로 임하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 한 발 짩씩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코로나 피해 도소매업 회생 방안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광주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 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 고 있는지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 증’ 신청 건수가 말해 준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31일까지 48일 동안 광주 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신청 건수는 전국(14만502건)의 6.7%에 달하는 9388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은 4415억 원으로 전국 5조 3000억 원의 8.3% 가량이다. 이 가운데 대출 금액은 14.3%인 634억 원 (1911건)이었다. 1건당 3300만 원가량 이 대출된 셈이다.

대출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7명은 자 영업업자다. 대출 신청 8000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9%로 가장 많았 고 음식·숙박업 27%, 서비스업 13%, 제 조업 등 기타 31%였다. 대출 신청은 40 대 33%, 50대 25%, 60대 13% 등 10명

중 7명이 중·장년층이었다.

문제는 대출금이 인건비나 재료비 등 운전자금으로 쓰인다는 데 있다. 자 영업자들이 특례보증으로 빚을 내 급 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황 이 장기화하면 자영업자들이 만기 안 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 는 구조다. 내수 침체와 함께 글로벌 경 제 위기의 조짐까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 원대의 민생·금융·기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는 정부의 거시적 재정 정책이 살피지 못하 는 지역 자영업계를 살릴 방안을 고민하 고 있다. 코로나19로 내상이 끊어지는 지 역 경제의 환부를 외면한다면 후유증은 훨씬 깊고 길게 갈 것이다. 광주시와 전 남도는 당장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자금 압박의 숨통을 틔워 줄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신문에서 ‘편집’은 뉴스의 크기를 조정 하고 기사에 제목을 붙여 지면을 구성하 는 일이다. 신문은 매일 발행된다. 편집 부는 동그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사각의 지면에 충실하게 반영하 기 위해 고민하고, 적절한 제목과 개성 있는 지면 창출을 위해 매일 분투한다.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다.

밤늦은 시간.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그 들이 가끔은 스스로 작업을 내려놓는 경 우도 있다. 이른바 ‘백지 편집’이라는 파 격이다. 소중한 지면에

‘백지 편집’

기사·제목·사진을 채우 지 않고 모두 ‘비움’으로 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한국일보는 2000년 1월 1일 1 면을 하얗게 비워 놓았다. ‘새천년이 도 래한 일보다 비중 있는 뉴스가 없기 때 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구에서 발행 되는 매일신문은 2016년 6월 22일자 1면 을 백지로 편집했다. 박근혜 정부의 영남 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항의 표시 였다. ‘백지 편집’은 신문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사건을 이슈화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 로 몰아넣는 홈런이나 골 세리머니, 라이벌 팀 을 무너뜨렸을 때의 짜릿함, 판정에 대한 불만과 패배에 대한 탄식까지...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기장에 불이 꺼지고 승부의 시계가 멈추자 신문 스포츠면에 활력이 사라졌 다. 공연과 전시가 멈춘 문화면도,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경제면도 마찬가지 다. 지금 편집기자들의 머릿속은 하얗 다. 차리리 ‘백지 편집’을 해 볼까?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경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구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